



# 개혁주의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말씀사역을 위한 제언

조 혜 정

I. 서론	1. 본문을 중시하는 규범적 측면
II.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위한 설교의 구성 요소의 통합적 고려	2. 설교자의 인격적 측면 3. 아동(청중)을 고려하는 상황적 측면
	III. 결 론

## I. 서론

위대한 신학자 요한 칼빈 (John Calvin)의 신학적 전통을 고수하는 개혁주의 신학은 그 어떤 신학 체계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선포, 즉 설교의 수위성을 강조하고 있다.<sup>1)</sup> 왜냐하면 개혁자들과 개혁파 신학의 후예들은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연구참여자 : 김현민, 석사

1) 김재성, "칼빈의 설교와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 「신학정론」, 통권 29집 (1997): 583-608.

기준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말씀을 듣는 청중의 심령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롬 10:13-15), 그 믿음은 청중의 삶의 방향성과 세계관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꾸어 놓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야하는 이유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의 설교(Calvin's Preaching)라는 뛰어난 책을 저술한 파커의 견해를 인용하여 디모티 조지(Timothy George)는 칼빈을 위시한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설교의 목적은 그 메시지와 가르침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설득하고, 초청하는 것이라 주장한다.<sup>2)</sup>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분께 응답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겨지게 될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청중의 삶의 전 영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sup>3)</sup> 이러한 점에서 개혁주의 설교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의 목적과 실천을 강조를 통하여 청중의 전체 삶의 영역인 가족과 교회와 세상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다는 조엘 비키(Joel Beeke)의 주장은 개혁주의 설교의 핵심을 관통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개혁주의 설교학” 이라는 책에서 티모티 켈러(Timothy Keller) 역시, 설교의 목적을 동일한 각도에서 피력하고 있다. 그에게 설교의 목적을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수고하노라”(골 1:28-29). 결국 성경이 증언하는 설

2) Timothy George, *Theology of the Reformers* (Tennessee: Broadman Press, 1989), p. 243.

3) 비록 여기서는 논의의 초점을 설교에 국한시키고 있지만, 기독교 교육의 목적 역시 많은 교육학자들의 의하면, 삶의 변화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Julie Gorman, “There's got to be more : Transformational Learning,” *CEJ* 5NC (2001), pp. 23-51.을 보라.

4) Joel Beeke, 「“개혁주의 설교” 설교개혁」 돈키슬러 편,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p.106.

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왕 되신 그리스도와 만나 그분의 다스림이 듣는 사람들의 삶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울은 강한 영향력, 변화된 삶, 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일로 말씀 사역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으로 켈러는 이해하고 있다.<sup>5)</sup>

그런데 현재 개혁주의 설교의 목적과 관련하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주제를 주로 성인들에게 국한 시켜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아동을 위한 말씀 사역의 신학적 정립이 전무한 상태이다. 고작 시중에 나오는 책들이라는 것은 신학적 안목이 아주 얇거나 아동의 삶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을 상실한 수준 낮은 설교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동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필자가 굳게 믿는 것은 성인을 위한 설교의 목적이 삶의 변화라면 아동을 위한 설교의 목적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 생애의 기간 가운데 맞이하는 각각의 발달적 국면 가운데 삶의 변화를 위한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sup>6)</sup>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의 목적은 개혁주의 설교의 목적인 삶의 변화를 아동 설교에 접목해 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주된 내용으로 아동의 삶의 변화를 위한 설교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한 개혁주의 설교가 이뤄지려면 설교를 설교되게 하는 요소들이 함께 균형 있게 어우러져야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 II.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위한 설교의 구성 요소의 통합적 고려

설교를 설교 되게 하는 구성 요소는 적어도 본문, 설교자, 청중 (아

5) Timothy Keller, 「개혁주의 설교학」(서울: 나침반, 1998), pp. 20-21

6) John Trent, Rick Osborne & Kurt Bruner, *Spiritual Growth of Children*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2000), pp.101-136.

등)이 될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여기에 덧붙여서 성령님을 첨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성령님의 사역을 실상 설교자의 역할뿐 아니라 전 과정을 주도하고 계심을 고려하여 볼 때 위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티모티 켈러(Timothy Keller)는 존 프레임(John Frame) 교수의 모델을 가지고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측면을 규범적 측면, 인격적 측면, 상황적 측면이라고 주장한다.<sup>7)</sup>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의 그림이 될 것이다.<sup>8)</sup>



### 1. 본문을 중시하는 규범적 측면

개혁주의 안목에서 바라본 삶의 변혁을 위한 아동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문일 것이다. 개혁주의가 본문을 중시하는 경향을 견지해 가는 이유는 오직 삶의 변화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다는 성경관 때문이다. 이승구 교수는 보스(Geerhardus Vos)의 견해에 힘입어 개혁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독특한 성경관은 다음 세 가지로 주

7) Timothy Keller, *Ibid.*, pp. 17-22.

8) Timothy Keller, *Ibid.*, p. 18.

9) Geerhardus Vos, 「성경신학」 이승구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pp.28-30.

장 하고 있다.<sup>9)</sup> 이 주장을 기준으로 개혁주의와 개혁 주의적이지 않은 성경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고 있다.<sup>10)</sup>

“1) 계시의 무오한 성격에 대한 인식(“하나님께서 인격적이고, 의식적이라면, 당신님의 모든 자기 계시 양식에 있어서도 당신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한 무오한 표현을 할 것이라는 추정을 불가피하다”); 2) 계시의 기본 사역의 객관성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계시는 밖으로부터 옴을 의미하는 것이다...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계시를 주셨으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즉, 객관적인 방식으로 할 것인가, 시편 등에서와 같이 주관적 계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충분히 신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기록 과정에서의 만전 영감(plenary inspiration: “이 문제에 대한 성경 자체의 의식을 생각하면 우리는 곧 ‘만전 영감’ 이든지, 아니면 아무 것도 영감된 것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시의 역사를 드러내고 탐구하는 것이 개혁주의 성경 신학인 것이고, 이런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개혁 주의적이지 않은 성경 신학이다.”

위에서 주장한 개혁 주의적 성경관 혹은 성경 신학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성경을 설교하는 두 가지 원칙을 이끌어내게 한다. 하나는 개혁주의가 신학의 모토중 하나인 “오직 성경”이요, 다른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즉 개혁주의가 독특한 성경 계시에 입각하여 규범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의미는 성경만을 말한다는 것과 성경 계시의 중심을 그리스도에 두고 설교한다는 말이다.

10) 이승구, “개혁주의 성경신학과 설교”, 『한국개혁신학 제4권: 첨단기술 사회와 개혁 신앙』 (한국개혁신학회, 1998), p.350.



먼저 개혁주의 설교는 오직 성경만을 전하고자 하는 본문 중심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개혁주의 설교학의 사상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칼빈(Calvin)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설교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질 때 가능하다고 역설한다.<sup>11)</sup> 김재성 교수의 글을 통해 오직 성경을 전하는 설교에 대한 칼빈(Calvin)의 견해에 대하여 귀 기울여 보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설교자가 성경 이외에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원래 주어진 대로 충실하게 청중에게 전달되느냐의 여부라고 보았다 ... 하나님의 메시지가 처음에 주어진 것처럼, 신실하게 이해되고 전수되어지게 하려면 설교야말로 순수한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물론 성경이 일차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요, 설교가 제이차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성경은 절대적이고, 주권적이다. 설교는 이차적이며, 부차적이며 종속적이다. 성경이 설교에 맞추어질 필요가 전혀 없음은 명백하다. 설교가 성경에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칼빈(Calvin)의 정신과 같이 오직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가 바로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라고 말할 수 있다. 칼빈(Calvin)은 강해설교의 개척자라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본문을 설교자의 사상과 논리전개의 발판정도로만 여기는 전통적인 제목설교나 주제설교의 한계를 넘어가려는 몸부림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해든 로빈슨(Haddon Robinson)이다. 그의 고전적인 설교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는 칼빈(Calvin)과 맥을 같이하는 설교의 정신을 발견하게 된다. 로빈슨에게 있어서 바른 성경적인 설교인 “강해설교란, 성경 본

11) 김재성, Ibid., p. 592.

문의 배경에 관련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으로 연구하여 전달되어  
진 성경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그 개념을 우선 설  
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며, 설교자를 통하여 다시 청중들에게 적  
용하는 것이다.”<sup>12)</sup>

이 로빈슨(Robinson)의 설교학은 미국 교회 설교학의 표준적인 경  
향으로 자리 잡고 있고, 한국에도 강해강단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아동 설교 안에서 얼마나 설교자들이 본문에 충실  
도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본문을 희생하  
면서 까지 아동의 기호나 흥미에 지나치게 짜 맞추는 설교가 주류를 이  
루고 있거나 성경본문의 일부분 만을 발췌하여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도덕적 교훈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sup>13)</sup> 이러한 현실적 상황 가운데 분  
명히 기억할 것은 아동의 삶의 변화 시키는 설교의 힘은 성경 본문의  
메시지가 충실하게 들려질 때 가능케 된다.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규범적 요소로서 본문을 중시하는 설교는  
또한 구속역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Redemptive-historical/  
Christ-centered preaching) 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혁주  
의 설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유의하는 설교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주의 설교학의 주장, 즉 하나님의 특별계  
시를 섬기는 사역으로서의 설교에 대한 이해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  
은 아마도 게할디스 보스(Geerhardus Vos)의 성경신학적 안목이다.  
보스(Vos)의 성경 신학에 근거한 개혁주의 설교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의 자기 계시의 특성을 드러내는 설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구

---

12) “Expository preaching is the communication of a biblical concept, derived from and transmitted through a historical, grammatical, and, literary study of a passage in its context, which the Holy Spirit first applies to the personality and experience of the preacher, then through him to his hearers”

13) 양승현, 「어린이 설교 클리닉」 (서울: 디모데, 2001), 13-17.



속사의 전진 흐름 가운데 그 본문의 독특한 위치와 내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정점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sup>14)</sup> 즉 본문을 구속적 전진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오직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고려되어 함을 역설하는 것이 개혁주의 설교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본문 중심의 설교는 단순히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 “오직 성경”만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신학적인 해석”을 통하여 구원역사의 전 과정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절대적으로 요구한다.<sup>15)</sup>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설교는 극단적인 도덕주의, 율법적인 권고, 인간 중심적 영웅 주의적 설교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작금의 한국 교회의 아동 설교가 아동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적 메시지는 진부한 개념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고 대신에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행위종교의 범주 안에서 대다수의 아동 설교가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필자가 권면하고 싶은 이것이다. 설교를 듣는 아동의 삶이 철저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매 주일 아동에게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새롭게 선포해 주어야만 한다.<sup>16)</sup>

14) Geerhardus Vos, *Ibid.*, pp. 21-30.

15)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pp. 263-312.

16) 여기서 필자는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억지로 무리하게 발견하려고 들거나, 알레고리칼 본문 설교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매 주일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는 의미는 모든 어린이 설교에서 십자가와 복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설교를 해야만 아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어린이들 마음에 “그게 바로 제 문제예요. 그게 제가 알고 싶은 질문이고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요.”라는(문제제기) 질문들에 대한 해답(the Answer)이 그리스도와 복음이다. 양승현, *Ibid.*, pp. 92-93.



## 2. 설교자의 인격적 측면

아동을 변화시키는 개혁주의 설교학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설교자의 인격적 측면이다.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였던 필립스 브룩스(Philips Brooks)는 설교란 인격을 통한 진리 전달("Preaching is the communication of the truth by man to men)이라는 지극히 고전적인 그러나 가장 뛰어나 설교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sup>17)</sup>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친히 창공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지 않으며, 천사들을 통하여 음밀한 주님의 음성을 주시지도 않으신다. 대신에 선지자와 사도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인생(설교자)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지옥의 유향불에서 고통하는 부자가 베드로에게 간청한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 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때 베드로 대답은 너무도 분명하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찌니라." 주님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혹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켈러(Keller)는 흥미롭게도 청중을 변화로 이끄는 설교를 빛과 열기의 문제로 설명한다. 빛이라는 것은 주로 내용의 문제로서 성경을 조목조목 해석하고 설교해 준다는 면에서 규범적 측면과 관련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빛은 설교를 듣는 회중(특히 아동)의 눈으로 현실을 인식하게 하고 새로운 힘을 주어 격려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황적 측면

17) 필립스 브룩스, 「설교학 특강」 서문강 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p.108.

18) Timothy Keller, Ibid., pp. 22-28.

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에 반해서 열기는 설교가 설교의 원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따뜻할 뿐 아니라, 열기는 그 힘 때문에 듣는 회중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인격적 측면과 관계되고 있다는 아주 통찰력 있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sup>18)</sup>

그렇다면 우리의 설교가 아동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설교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질이 요구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 특별히 빌 휘태커(Bill D. Whittaker)의 주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sup>19)</sup>

첫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란 거듭 난자를 의미한다. 인간이 다시 태어나지 않은 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종교적인 형식에 깊게 길들여 있는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역설하신 것이다(요 3:3). 영혼을 변화시키는 열기는 오직 회심한 사람 안에서만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

둘째,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휘태커(Whittaker)에 의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요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와 의무를 부여하신다면, 구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평생 동안 설교자로 또 교회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이 일생동안 설교를 한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목사와 교사로 부르시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의 일을 하게”(엡 4:11-12) 하신다.<sup>20)</sup>

셋째, 주님을 따르는 자이어야 한다. 주님을 따르는 자란 그분에게

19) Bill Whittaker, 「설교 리모델링」 김광석 역. (서울: 요단, 2002), pp. 49-58.

20) Ibid., pp.54-55.

헌신하는 자를 의미한다. 헌신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는 설교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지 못한 사람에게 근본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sup>21)</sup>

넷째, 주님과 교제하는 자이어야 한다. 주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누게 되는 교제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하여 바운즈(E. M. Bounds)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설교는 한 시간짜리 공연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이다.” 간절한 기도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친밀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휘트커(Bill D. Whittaker)는 예회를 통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 가게 점원이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피터 마샬(Peter Marshall)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제가 하나님을 더 알도록 도와줍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설교를 통해 설교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교제할 때 발견한 하나님의 영광을 투사해야 한다.”<sup>22)</sup>

마지막 다섯째, 성령님의 능력 부으심을 경험해야만 한다. 인간 설교자가 아무리 기발한 착상과 설교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우리의 설교 사역에서 아동을 변화시키는 효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설교 사역을 생각할 수 없다. 성령님의 능력(기름) 부어주심이 일어나야만 설교는 청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뜨거움과 힘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엠 바운즈(E. M. Bound)의 주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는 설교행위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주장하였다.<sup>23)</sup>

---

21) Ibid., p.56.

22) Ibid., p.58.

23) E. M. Bounds, 「기도의 능력」이정운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62), pp. 88-9.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오늘날의 강단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며, 또 강단의 설교자가 반드시 지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기름 부으심은 친히 하나님의 섭리로 온 손길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그 부음 받은 대상을 온전히 유희시키며 세척하여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의 마음, 머리, 영혼, 곧 인간을 온전히 세속과 이 땅위의 이기적인 동기와 목표로부터 격리시켜, 순전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부터 따로 구별 지어 주는 것이다. 수 많은 집회에서 회중을 격동시키고 마음에 거룩한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설교는 이러한 성령의 기름부으심에 의해서만 기대되는 것이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설교는 회중의 양심을 찌르고 영혼에 호소하며, 마음을 사로잡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결국 이상의 토론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설교의 변화의 크기는 그 설교자의 변화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다. 설교자가 변화하지 않으면 수많은 설교의 기술이나 방식이 변화되어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설교를 통하여 아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직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만 설교자는 변화된 시각에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시각에서 성경을 볼 때 변화된 설교 내용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청중을 변화된 새로운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3. 아동(청중)을 고려하는 상황적 측면

아동의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위해 고려해야 할 마지막 설교의 구성요소는 아동이 처해 있는 상황적 측면이다. 흔히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설교학이 상황을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개혁주의는 그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 보다도 청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설교의 사역 안에 청중이 적극적으로 되기를 기대한다. 비록 설교 행위가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피쳐(pitcher)처럼 던져 주고 청중이 캐처(catcher)처럼 이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수납(reception)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 즉 믿음의 행위 가운데 있는 경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칼빈에게서 청중의 태도와 책임은 중요시된다.<sup>24)</sup>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혁신학이 오직 본문과 설교자에게만 집중하느라 청중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개혁주의에서 청중이 고려되지 않았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자들이 설교 안에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에 관심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식, 즉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즉 창조적인 접근 혹은 형식을 위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개혁주의 설교 안에서 청중(아동)을 고려하는 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최근의 설교적 방향성이 던져주는 공헌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대 설교학의 초미의 관심거리는 신 설교학(New Homiletic)적 경향으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신 설교학 운동을 여러 가지로 정의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창조적인 설교 구성 방식을 통하여 청중(아동)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청중 중심의 설교학”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지만, 최소한도 지성보다는 마음을 움직이는 귀납적이고 플롯이 있는 설교와 아동으로 하여금 “아하”의 감탄사가 터져 나오게 하는 클라이막스(climax)와 반전이 있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크레독(Craddock)의 표현으로 말하면 인간의

24) 김장진, “Calvin's View of Preaching” 『고려신학』 2002 (제 7집), p. 140.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는 문제제기와 복음의 해답을 찾는 귀납적인 설교(Inductive preaching)이고, 로우리(Lowry) 표현을 빌리면, 소설적 기법을 활용한 갈등에서 해결의 실마리 그리고 복음 통한 미래로서 초대로 나아가는 네러티브 설교(narrative preaching)라고 말할 수 있고, 유진피터슨(Eugene Peterson)은 전복을 불러 일으키는 영성(subversive spirituality)이라는 표현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sup>25)</sup> 또한 웨스트민스터의 변증학 교수인 존 프레임(John Frame) 교수에 따르면, 상황적 관점(Situational Perspective): 무엇이 문제인가? (“What is the problem?”)에서 규범적 관점(Normative Perspective):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it?)를 지나 실존적인 관점 (Existential Perspective):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What changes are needed in them, so that they may do the right thing?) 으로 진행되어지는 설교라고 주장하고 있다.<sup>26)</sup>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의되고 있는 청중(아동)을 고려하는 창조적인 접근은 위에서 제시했던 본문을 드러내는 강해설교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와 갈등을 일으키기 보다는 오히려 보완해 준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아동의 삶의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청중(회중)의 “필요의 단계”를 제시하는 위에서 열거한 방식들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규범적이고 본문 중심(강해설교)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비전(기독론적 설교)을 심어주어 새로운 삶과 미래를 향한 결단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규범적 요소와 상황적 요소에서 도출되는 설교에 대한 이론들은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되는 양자 종합이다. 규범적인 측면이 주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내용)의 질문

25) 김덕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서울: 콤파스 출판사, 2005), 99.

26) 정종성, 「설교와 해석」(서울: UCN, 2005), 75.

에 해답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상황적 측면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형식)의 질문에 답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용(content)과 형식(form), 무엇(what)과 어떻게(how), 교훈적인 면(instructive aspect)과 감성적인 면(affective aspect)을 함께 조화롭게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삶의 변화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설교의 구성요소 세 가지는 상호보완적이고 대화적인 채널 안에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아동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약화 될 것이다.

### III.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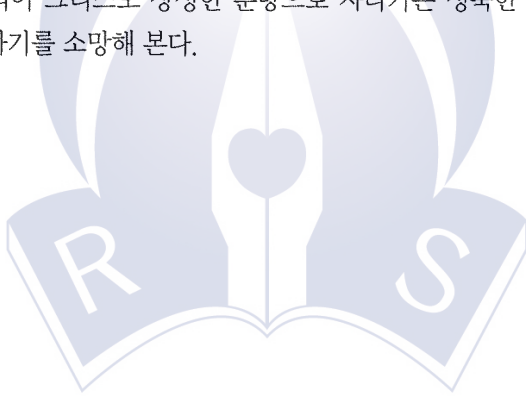
지금까지 설교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세 가지 본문, 설교자, 청중(아동)의 측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아동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위하여 이들 요소들이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필자의 주된 주장은 아동의 전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설교의 구성요소들이 배타적으로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sup>27)</sup>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들 가운데 한 측면에만 깊게 몰두하여 다른 측면들을 배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개혁주의 설교의 목표가 아동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 사람을 움직이는 설교를 위해서는 삼각형의 한 부분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규범적인 국면으로 본문 중심의 설교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나아가야 하고, 인격적 측면에서 설교자의 변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힘써야 하며, 상황적 측면은 청중(아동)이 오늘

27) Will Metzger, *Tell the Truth* (Downer Grove: IVP, 1981), pp. 19-157. 이 세 가지 국면을 그s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person by whole people"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개혁주의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말씀사역을 위한 제언 271

서 있는 삶의 정황과 그들에 코드와 필요에 부응하는 설교 형식의 필요성을 찾아가게 만들어준다. 이 조화가 깨어진다면, 설교는 일방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아동의 삶이 변화에 치명적인 손해가 끼쳐질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세 국면의 장점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서로 손을 잡게 되면, 아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knowing about God)을 아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knowing God)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 (experiencing God)케 하여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설교 사역 가운데서 아이들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성숙한 변화의 역사 펼쳐져 가기를 소망해 본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